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동향" 특집호 발간에 즈음하여

ITU-T SG17은 유선의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정보보호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그룹은 2025 - 2028년 회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현재 영국의 Arnaud Taddei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를 이끌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그룹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며, Working Party(WP) 의장단은 산업계 전문가를 우선 고려하되, 성별(Gender) 및 지역(Geographic) 균형(Balance)을 반영하여 임명되었다.

AI는 현재 급속한 진화를 거듭하며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단순 반복적 지식 활동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신속히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Agentic AI가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단순 질문-응답 기반의 AI를 넘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된 작업을 AI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 일정, 지역, 테마, 음식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이에 따라 교통, 숙박, 음식점 등을 스스로 예약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정보보호 이슈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가,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보관·이용되어야 하는가, Agentic AI는 어디에, 어떤 환경에서 구축되어야 안전인가 등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로 귀결되고 있다.

논문은 기술의 설계와 검증, 특히는 기술의 소유권 보장, 표준은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표준의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술의 독점을 지양하고 중재와 합의의 기법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원원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독점 방지와 상호 발전을 유도하는 미국의 표준화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TU-T, ISO, IEC, JTC1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들도 최근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 표준기구들은 기구 간의 중복성 제거와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의장직의 세대 교체, 성별 균형(Gender balance)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년간 표준화 현장에서 주요 논쟁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강화하며 양적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질적 수준 또한 점차 향상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정부가 직접 표준 개발에 개입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표준의 수용자에서 보급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분들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학회지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학회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ETRI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전문위원 나재홍